

춘천주교
김주영 주교님
2023년 성탄 메시지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마태 2,10)

친애하는 하느님 백성 여러분!

하느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기쁜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을 따라 길을 나선 그들은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을 때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본 그들은 곧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탄과 겸손한 경배!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낮춤은 창조된 피조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시작한 여정은 녹녹치 않았지만 별의 인도에 순응했고 멈추어 설 때를 알았습니다. 우리도 고도화된 기술 문명과 경제 성장에서 멈추어 서서 주위를 둘러봅시다. 그분의 별은 위기에 처한 공동의 집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난한 이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외로움과 고독함에 갇힌 형제 자매들에게 멈추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슬픔에 관심을 갖고 작고 겸손하게 오신 하느님의 사랑에서 위로를 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하느님 백성 여러분!

하느님은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거룩한 성탄시기, 하느님의 신비에 더 가까이 머무릅시다. 마음속 슬픔과 고뇌, 일상의 바쁨에서 잠시 멈추어 눈을 감고 아기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온 마음과 사랑으로 경배드립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선한 마음과 평화와 위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친교로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하십시다. 언제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셨던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에 우리 사회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문의: 천주교 춘천교구 문화홍보국 033)240-6014